"무너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인터뷰 -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당선은 개인의 승리 아닌 전북교육 바꾸라는 도민의 명령
교사 지원 강화 · 학교행정 업무 경감… 신뢰 회복 방안
기초학력 향상 · 맞춤형 진로교육 · 농촌유학 확대 추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진로교육,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당선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명령"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좋은 정책까지 적극 수용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과제로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간 신뢰가 약화된 상황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는 학교 중심·학생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통한 학습안전망 구축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 설립과 AI 진학·진로 플랫폼 구축 △농촌유학 확대 등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당선인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으로 교사 지원 강화와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제시했다.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악성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지원청 업무지원센터를 통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해 교사들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학교 민주주의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역량 교육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천 당선인은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양성·배치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로·진학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 AI 기반 진학·진로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비교과 활동, 독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촌유학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300명 수준인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3,000명까지 늘리고 교육귀촌 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유학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천 당선인은 "교육청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도민"이라며 "인사·예산·계약 분야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청렴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성 당선인은 고창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사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오는 7월부터 4년간 전북교육을 이끌게 된다.

/오상근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오전 9시 전주에 위치한 순직교육자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마친 뒤, 본격적인 당선인 행보에 나섰다.

천 당선인, 순직교육자추모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시작

당선증 교부 후 교육계 원로들과 소통 나서
이남호 후보, 패배 인정 · 감사 메시지 전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순직교육자추모탑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천 당선인은 4일 오후 4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당선자 행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전주에 위치한 순직교육자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란우 선거대책본부장, 박일관 정책본부장, 노성원 상황실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천 당선자는 후보 등록 당시에도 이곳을 찾아 헌화한 바 있다.

이후 천 당선인은 선거캠프를 방문해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차상철 교육연대 상임대표, 황민주 교육계 원로,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 당선인은 오후 4시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천호성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가 함께 제기한 학력신장의 과제가 임기 안에 전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신장, 명품고 육성, 지역특화 교육존, 교사 권익 보호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의제가 전북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누가 교육감이 되든 이러한 과제는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한 도민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북에 필요한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체험형 청렴교육 청렴업무 담당자 등 30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교육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4일부터 5일까지 전남 강진 다산청렴연수원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 및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체험형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의 집합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렴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산 정약용의 청렴·목민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다산 관련 유적지 탐방, 청렴 실천 사례 공유, 참가자 간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 수련과 힐링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청렴 업무 담당자들의 재충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과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역량과 업무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 나이스 유아학비 사용자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 현장의 유아학비 업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아 나이스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과 12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과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산실에서 공·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아 나이스 유아학비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 나이스는 공·사립 유치원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전산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학부모에게는 유치원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해 알 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유아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활용도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립유치원 담당자 교육은 교재를 활용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립유치원 담당자 교육은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전산실에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에서는 유아 나이스 주요 기능 활용 방법과 유아학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학비 업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대상으로 교육협력사업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대학 교육협력사업 성과 높인다

전북교육청, 도내 국립대 파견 교육협력관 대상 현장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추진 중인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대상으로 교육협력사업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대학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6월 도내 3개 국립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로 3명씩 총 9명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교육협력관들은 고교-대학 연계 사업과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업, 교원 연수 및 특별연수, 신규 교육협력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협력관들이 사전에 제출한 사업 추진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단이 대학별 사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연말 예정된 교육청-국립대 교육협력사업 성과평가를 앞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와 성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문가와 실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은 사업 기획부터 운영,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대학과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교육청과 대학 간 연계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이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오상근 기자

도내 교원단체, 새 교육감에 개혁과제 제시

전교조 전북 "교권 보호 · 학생 성장중심 교육 필요"

교육행정 개선 등도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새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와 교육행정 개선, 학생 중심 교육정책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1년 가까운 공백 끝에 전북교육의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의혹 제기와 비방, 고발과 반박이 반복되며 많은 교육 주체들에게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새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꼽았다.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분쟁,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도 요구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 교육행정 개선 약속과 함께 과거 파기됐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협약 인정 및 보충교섭 추진 약속을 실천해 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중심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성적과 입시 경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우울감과 무기력, 학업 중단 문제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총 "현장교사 참여 보장 · 학교 지원 행정 전환을"

"교육활동 보호 최우선"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교육 현장 회복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북교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은 학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 업무 정상화, 유아교육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 교육감 체제의 첫 과제는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특히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현장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과 학교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를 새 교육감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반복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와 행정업무,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보고, 회의를 줄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전북 체류형 관광 인력양성 선정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가 전북 관광산업의 체류형 관광 전환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관광경영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특별한(one) STAY: 전주-서해안 체류형 관광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인 '관광일자리 권역이음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주를 관광 인재 양성·교육의 거점으로, 군산·김제·부안·고창 등 서해안권을 체류형 관광과 일자리 창출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서해안권으로 확산하고 지역 관광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관광분야 구직자를 연계함으로써 전북 관광산업의 고용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